

# 뉴욕장신 뉴스레터



제 2호  
2014년 1월 15일

## 뉴욕장로회 신학대학(원)

KPCA,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NY)

277 Closter Dock Rd., Closter, NJ 07624

Tel : 201-660-7778 Fax : 201-660-7779 홈페이지 <http://www.nypts.org>

학장 유재도 박사 / 학감 이기백 박사 / 총무처장 임선순 목사

## 뉴욕장로회 신학대학(원) 2014년 봄 학기 신입(편입)생 모집요강

KPCA,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NY)

2014년 봄학기 전형일 : 2014년 1월 30일

본 신학대학은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가 직영하는 학교로서 1978년에 설립하여 지금까지 35년간 수많은 목회자, 선교사, 교수등 훌륭한 영적지도자를 양성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신학대학입니다. 본 대학 교역학석사(M.Div.) 과정을 졸업한 분은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고, PCUSA 교단에서도 목회와 선교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군 군목으로도 활동하실 수 있고, 한국에 가실 경우에는 영락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주안교회 등이 속해 있는 장로교 통합측 교단에 이명하여 목회할 수 있습니다.

### 유학생(F-1) 신분을 위한 I-20 발급 (2014년 1월 부터)

모집학과	신학사 (B.Th.) 교역학석사 ( M.Div.) 신학석사 (Th.M.)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신앙고백서, 이력서, 서약서 각 1통씩, 추천서 (B.Th는 담임목사, M.Div는 노회장), 전형료 \$50. * 서류는 본교 홈페이지( <a href="http://www.nypts.org">http://www.nypts.org</a> )에서 다운로드
입학전형일시	2014년 1월 30일(목) 오전 10시 본교 사무실 주소: 277 Closter Dock Rd., Closter, NJ 07624 Tel) 201-660-7778 Fax) 201-660-7779
전형과목	성경, 영어, 일반상식, 면접.
개강일	2014년 2월 4일(화) 오전 9시 본교 강의실 주소 : 370 Demarest Ave., Closter, NJ 07624
강의시간	화요일, 목요일 (오전 9시~ 오후 7시 50분)
원서교부	본교 사무실 주소 : 277 Closter Dock Rd., Closter, NJ 07624) 전화 : 201-660-7778 Fax : 201-660-7779 홈페이지 : <a href="http://www.nypts.org">http://www.nypts.org</a>
상담문의	학 감 : 이기백 목사 732-266-9013 총무처장 : 임선순 목사 917-754-5220, 718-921-3277

## 뉴욕장로회 신학대학(원) 교수소개



**학장 유재도 박사**  
(기독교 교육)



**이기백 교수**  
(실천신학)



**임선순 교수**  
(역사신학)



**김유태 교수**  
(신약신학)



**김윤권 교수**  
(구약신학)



**김삼천 교수**  
(구약신학)



**전광성 교수**  
(구약신학)



**김희건 교수**  
(조직신학)



**김건철 교수**  
(선교신학)



**박용범 교수**  
(기독교 윤리)



**백성철 교수**  
(아버지 분교)



**손안젤라 교수**  
(상담신학)



**김종훈 교수**  
(실천신학)



**소기범 교수**  
(영성신학)

김건철 교수	Boston University (Th.D. cand.) 장로회신학대학원(M.Div.,Th.M.) 영남대(B.A.)
김삼천 교수	Canada Christian College(D.Min.)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숭실대(B.A.)
김유태 교수	Drew University (Ph.D.) 장로회신학대학원 (M.Div.) 연세대 (B.A.)
김윤권 교수	장로회신학대학원(Th.D cand. M.Div.) 연세대(Th.M. B.A.)
김종훈 교수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D. Min.)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M.Div.) 계명대 (B.A.)
김희건 교수	Drew University (Ph.D.)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서울대(B.A.)
박용범 교수	Boston University (Th.D cand.)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서울대(B.A.)
소기범 교수	Chicago Theological Seminary(Ph.D)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숭실대(B.A.)
손안젤라 교수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Ph.D., Th.M., M.Div.) Drew 신학교수
유재도 교수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Min.)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Th.M) New Brunswick Seminary(M.Div.) 장신대 (B.Th.)
이기백 교수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D.Min.)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계명대(B.A.)
임선순 교수	뉴욕장로회신학대학원 (Th.M., M.Div.) 연세행정대학원, 성균관대 (B.A.)
전광성 교수	영국 St. Andrew University(Ph.D.) New Brunswick Seminary(M.Div.). 연세대(B.A.)

## “뉴욕 장로회 신학대학(원)과 블렌톤 필이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손안젤라 교수  
드류대학/신학대학원 부교수  
블렌톤 필 한국어  
목회 돌봄과 상담 디렉터

1990년도 가을에 필라델피아 지역에 위치한 사마리탄 상담연구소(Samaritan Counseling Center)에서 목회 상담 교육과 임상 실습을 시작한지 24년째로 접어 들어갔다. 24년 전 American Association of Pastoral Counselors의 수련과정 연수를 시작하여 이제는 fellow로 뉴저지 지역 Closter, Leonia, 그리고 Montville의 세 곳에서 개인 상담을 하고있다. 드류대학에서 부교수로 가르치고 있어 상담 시간에 제한이 없지않아 있지만 가르침이 논리 중심만이 아니고 실습에 근거하여 잘 정돈된 교육을 하고픈 마음에 그동안 꾸준히 해왔다.

지난 20여년간의 삶은 준비와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목회 상담 교육을 받으며 임상 실습을 하는 중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국인들을 위한 상담 연구소를 설립하여 영성을 뒷바침 해줄 수 있는 미국계 한국인들이 소홀이 하고있는 정신건강에 힘이 되라는 비전을 주셨다. 이 비전을 위하여 열심히 나 자신을 준비하였다.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하면서 목회 상담 훈련을 위한 시간과 경비를 상담 교육, 임상 실습, 그리고 수 많은 시간의 수퍼비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투자하였다. 투자의 결과는 목회 상담자로서의 자격이 단단해진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목회 상담 훈련을 통하여 나의 마음이 편안해졌고 삶의 거의 모든면이 포용이되며 이해심이 넓어지고 삶의 어려운 면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드류신학대학원에 목회 상담학 교수로 시작한지 얼마 후 2002년도에는 드류신학대학원의 학장이었던 Dean Maxine Beach로부터 드류대학 교직외로 한국인들을 위한 상담연구소를 개인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할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아 놓았다. 나는 실력있고 상담연구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들에게 나와 함께 상담연구소를 운영해 보지 않겠냐고 문의를 하였다. 하지만 다들 이구동성으로 “상담연구소를 운영하는것이 얼마나 어려운것인지 모르지? 나는 생각이 없어.” 라고 딱 잘라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머리를 가우뚱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어려울까? 한국인과 미국인의 차이일까? 생각하면서 나의 순진한 어리석음이었는지는 몰라도 나는 그리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기 보다는 미국계 한국인 커뮤니티에 상담연구소의 절실한 필요성 자체가 나에게 훨씬 더 중요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꼭 해야한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제대로 된 상담연구소를 설립하자면 나 혼자 힘으로는 안되고 실력과 경험을 겸비한 동역자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그렇게해서 거의 10년이 지난 2011년 말에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사건이 생겼다.

Blanton Peale Graduate Institute의 프레지던트인 Paul Bradley로부터 2대 디렉토로 수고하였던 구 미리암 목사님이 사임한 뒤로 공석이었던 한국어 목회 돌봄과 상담 프로그램 (KPCCP)의 디렉터에 혹 관심이 있느냐는 제안이 들어왔다. 나는 드류대학에서 허락을 해 준다면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비전이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더 좋은 여건과 때에 이루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였었다. 우리 딸 아이가 대학을 입학한 그 학기 말경에 이런 제안이 들어온것은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라고 당장 생각이 들었다. 또한, 더 놀라운것은 목회상담의 시초라고해도 과언이 아닌 Blanton Peale Institute라는 든든한 틀 안에서 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된것은 나의 작은 머리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일이다. 나는 당장 드류신학대학원 학장이었던 Dean Jeffrey Kuan으로부터 드류대학에서 가르치는것 별도로 Blanton Peale Institute의 한국어 목회 돌봄과 상담 프로그램 (BP-KPCCP)의 디렉터의 일을 하는것에 대하여 문의하여 서면으로 허락을 받았다. BP-KPCCP 디렉터의 일 시작을 2012년도 1월부터 시작하여 벌써 2년이 지났다. 나는 요한복음 15장 4절과 11절에 기록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BP-KPCCP의 목표로 삼고 한국어 목회 돌봄과 상담 프로그램의 교육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을 회복하는데 두었다.

2012년도는 BP-KPCCP가 여러면으로 새롭게 단장되는 해라고 볼 수 있었다. 2013년도에는 하나님께서 BP-KPCCP가 뉴저지와 뉴욕지역의 정신건강과 영성에 조금이나마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해이다. 워싱턴주 상원의원인 신호범의원을 모시고 2세와 1세를 위한 각 프로그램으로 첫 컨퍼런스를 Teaneck에 위치한 Marriott at Glen Point에서 10월 13일에 성공적으로 개최하게되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는 해외한인장로회 교단 산하에있는 뉴저지 성서대학과 협의하에 블렌튼 필-한국어 목회 돌봄과 상담 프로그램을 뉴저지 성서대학에서 2013년 가을학기부터 개최하기로하여 1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가을학기를 마쳤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정적으로 열심히하는 모습을 보며 나 또한 여러번 감동을 받았다. 아울러 뉴욕 장로회 신학대학교/원과 협의하에 2014년 봄학기부터는 신학교 학생들에게 신학 공부와 목회돌봄/상담 공부를 함께하도록 권장하여 블렌튼 필-한국어 목회 돌봄과 상담 프로그램에서 연수할 수 있도록 협정하였다.

이런 교단과 블렌튼 필-한국어 목회 돌봄과 상담 프로그램과의 협력은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 온 것이다. 목회상담의 훈련은 꼭 목회돌봄/상담을 하기 위한 것이기 이전에 각 사람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중독, 도박, 우울증, 또는 정신분열 등 심한 경우를 다루기 위한 것만이 상담훈련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목회 돌봄/상담 훈련은 제자훈련의 일면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목회 돌봄/상담 훈련은 누군가를 상담을 통하여 변화시키기 이전에 나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 삶에서 자신의 모습 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알면서도 또한 변화되기를 갈망하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모를 사람이 없다. 이런 우리들의 무기력한 모습의 가장 큰 원인은 변화한다는 것을 지식과 의지에 의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에 있다. 그렇기때문에 실패를 거듭하게되며 끝내는 결국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된다. 또한 가정내에서 부부간의 관계가 순탄하지 못하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도 많은 문제가 일어나며 서로간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이 전문가, 저 전문가로 부터 들은 “how to”를 거듭 노력해 보지만 처음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듯 하더니 상황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심지어는 더 악화되는것을 경험하곤한다. 그렇기 때문에 블렌튼 필의 한국어 목회 돌봄과 상담 프로그램과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피며 자신을 비워가는 과정을 밟을 때 좀 더 영구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2012년 가을학기에 입학하였던 한 학생의 경험담을 소개한다.

상담공부를 하여 평신도들이 세상살이를 하는 동안 겪는 어려움을 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과 심리학에 근거하여 상담해 주고 싶다고 결심한지도 27년이 흘렀다. 부모님의 은혜로 곁에 자라 미국으로 유학을 왔다. 남편은 모든 이민자들이 사업을 하여 성공하는 모습들만 보고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했다. 모든 사람이 다 사업가는 아닌것을 긴 세월이 걸리면서 알게 되었다. 타인들이 모두 아는 그의 모습을 자신만이 못 깨닫는게 너무도 안타까웠고, 마침내는 가정의 근간을 흔들여 놓았다. 살아남기 위하여 밤낮으로 뛰었다. 그런가운데서도 전도길이 막히지 않도록, 이자는 못드려도 사체의 원전은 다 갔었다. 엄청난 불만, 불평, 원망과 분노가 쌓여갔고, 거기다 고부간의 갈등까지 심하여 사는게 사는것이 아니었다. 오직 내게 한 길 그것은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그 이름과 새벽기도만이 나의 살 길이었다. 기도하면 마음에 평화가 있었지만 기도하지 못할 때에는 지옥이 따로 없었다. 복새통가운데서 아이들이 성장하여 내 품을 떠나고 나니 더 미루수가 없어서 목사님의 추천으로 Blanton Peale Institute Korean Program 에 등록하였다. Summer Program 의 첫번째 Supervision Session은 나의 인생의 분기점이 되었다. 그동안 가슴에 쌓여있던 많은 응어리진 것들을 토해 내어 놓았다고 표현함이 옳을것 같다. 교수님께 평생토록 고마워 할 것이다. 그동안 기도중에 많이 울곤 했는데, 나의 앞에 육신을 가진 한 인간이 나의 아픔을 들어준다는 것이 나에게는 한없는 위로가 되어주었고, 교수님의 따뜻한 수용적인 태도에 나의 아픔을 열어 놓았었다. 많은 강의 내용들과 여러 교수님들의 교수방법들은 나의 상처난 영혼에 치료가 되어 주었다.

이제 한 학기를 남겨두고 되돌아보면 결국 내가 문제였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로 인하여 나의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 제일 가까운 남편과 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며 살아온 인생인지 알게 되었다. 그동안 나는 자신이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며 살아온 것 같다. 이제 나이도 60이 넘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이렇게 또 저렇게 반응하며 사는지 더욱 알고 싶어졌다. 나 자신을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나는 조금씩 나를 아는 만큼 자유로와지고 있다. 나를 얽어매는 것들에서 완전히 자유하며 날개를 펴고 날고싶다. BP-KPCCP대부분의 학생들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수업을 통해서 배운점, 느낀점, 그리고 자신의 모습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하여 기말고사에 기재하였다. 2014년도를 바라보며 더 많은 교우들이 BP-KPCCP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해야 하는지를 아는것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가정과 교회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할 것을 소망한다.

# 저항과 화해: 포스트콜로니얼 성서해석 (다니엘서 1-6장을 중심으로)



전광성 교수  
영국 St. Andrew University(Ph.D.)  
New Brunswick Theological  
Seminary(M.Div.) 연세대(B.A.)

유대교 및 기독교 성서학자들은 서로 간에 보는 관점 즉, 다니엘서를 대하는 성서해석학적 접근방법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예언문학, 묵시문학과 지혜문학의 장르로 이해되어 왔다. 본 논문은 특별히 다니엘서 1-6장까지의 내용을 포스트콜로니얼 관점 (Postcolonial Biblical Criticism)을 가지고 해석한다. 다니엘서가 예언이나 지혜나 묵시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저항문학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본 논문에서 부각시켜 주고 있다. 이 처럼 포스트콜로니얼 성서해석은 다니엘서를 저항문학으로 간주할 때, 가장 강력한 해석학적 방법론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포스트콜로니얼 방법론은 한마디로 말해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역학 관계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인다. 다니엘서 1-6장을 읽어보면, 바벨론 왕국 및 페르시아 왕국이 등장한다. 이 두 왕국들은 당시 고대근동지역에 식민지들을 건설한 대표적인 제국들로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지배자들로서, 자신의 피지배자들을 통해 자신의 왕국들을 더욱 부강하게 하는 식민지 정책을 펼쳤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포스트콜로니얼 방법론은 바로 이러한 힘의 논리를 가지고 평화롭게 자신의 문화와 혹은 언어와 얼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민족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강자가 가지는 식민주의적 사관을 해체하는 반식민주의적 담론을 만들어 가는데 아주 유용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은 저항문학으로서 다니엘서 1-6장을 이해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이렇다. 남 유다 왕국의 포로로 잡혀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제국의 식민주의적 억압정책의 일환으로 남 유다라는 자신의 조국을 떠날 수 밖에 없었고, 자신의 나라에서 귀족들이었지만 포로신분이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왔다. 그들에게 있어 피지배자의 고난이 시작된 것이다. 다니엘서 1장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언어와 문화를 강제적으로 배워야 했던 것이다. 마치 일제 강점기 시대의 일본의 식민주의 정책, 즉 민족말살 정책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한글이 아닌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식 이름으로 가져야 했고, 일본천황을 숭배하고, 신사참배하는 의식을 강요당했던 것을 보면, 다니엘서 1장에서 보여주는 그 역사적 정황 역시도 우리 민족이 경험했던 식민주의 억압정책과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란 이름으로 불려지고, 바벨론의 언어를 강제적으로 3년동안 배워야 했다. 다니엘서 3장에서 볼 수 있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왕이 두라평지에 세운 금신상에 절하도록 강요하는 등,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어떻게 지배하고 통제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들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핵심적인 내용은 첫째가 이러한 제국주의적 포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포로민들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지배와 압제 속에서 히브리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어떤 방식으로 지키고, 나아가 식민주의적 우월성에 도취되어 있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체시키고 전복시키고 있는 지 그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를 위해, 포스트콜로니얼 이론의 석학으로 알려진 하버드대학의 영문학과 교수로 제직중인 호미 바바(Homi K. Bhabha)의 이론을 가지고 다니엘서1-6장에 담겨 있는 식민주의의 지배체제과 이데올로기를 무력하게 만든다. 그 주요 이론이 혼전성(Hybridity), 모방(mimicry)이며, 마지막으로 양면성(ambivalence) 이론이다.

둘째로, 중요하게 다루어진 부분이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이다. 이전에 추구했던 제국주의 (혹은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그들 상호간의 화해의 길을 모색하는 일이 본 논문의 후반부를 차지하고 있다. 흔히 포스트콜로니얼 성서해석학이란, 식민주의적 가치체계에 대한 전복을 위한 저항의 측면에만 무게가 실려있기 때문에, 피지배자와 지배자 사이에 서로간에 화해를 모색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다음을 강조한다. 포스트콜로니얼 방법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종국적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바로 전복과 해체를 위한 저항이 아니라 화해로서의 저항의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특히 본 논문의 다니엘서 1-6장의 내용을 가지고 강조해 주고 있다 (특히 바벨론 왕에 대한 다니엘의 태도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는 것이다).

## 2014년 인텐시브(Intensive) 코스 안내

본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텐시브 코스 개설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구비서류 등을 준비하셔서 학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4년 2월 3일(월) - 2월 14일(금)

♣ 과 목 : 한국교회사, 헌법

♣ 수업료 : \$ 1,500

♣ 접 수 : 본교 사무실 (277 Closter Dock Rd., Closter, NJ 07624) Tel) 201-660-7778 Fax) 201-660-7779

♣ 연락전화 : 학감 이기백 목사 732-266-9013 /총무처장 임선순 목사 917-754-5220, 718-921-3277

※ 구비서류 : 1) 미국대학교 졸업(예정) 및 성적증명서  
3) 당회장 추천서

2) 이력서 및 사진 2매  
4) 노회장 추천서

# 학교 소식 및 광고

## 종강예배

지난 12월 12일 오후 7시에 땅끝교회(유재도 목사)에서 2013년 가을학기 종강예배를 드렸다. 학감 이기백 목사의 인도로 “예수님의 제자(마28:18-20)”라는 제하의 학장 유재도 목사의 설교에 이어 성찬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종강예배에 신경호 학우의 색소폰 특별 연주와 땅끝교회에서 제공하는 만찬으로 교수들과 학생들의 지난 한 학기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 학우들의 기도회

지난 12월 17일 저녁7시에 본교에서 학우들이 특별 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기도회에는 종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학우들이 참석하여 총무처장 임선순 목사의 인도로 학교와 교수와 학우들을 특히 투병중인 김성숙학우의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또한 지난 한 학기동안의 일들을 뒤돌아보면서 학우애를 더욱 돈독히 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 I-20 발행되다

지난 12월 31일 본교와 Blanton-Peale Institute와 상호 교육협정협약을 체결함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추진해오던 I-20Form을 2014년 1월부터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많은 이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 I-20 Form을 발행함으로 이런 어려움을 일소하며 면학에 열중 할 수 있게 되었다. 양 기관의 대표로 뉴욕장로회신학대학(원) 유재도 학장과 Blanton-Peale Institute 목회상담 프로그램 손 안젤라 교수 (Director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Korean))으로 하여 운용하게 된다.

## 학장동정

새해를 맞이 하면서 2014년 1월 13일 부터 한달간 본교 유재도 학장께서 한국의 장로회 신학대학(원)과 장로회 신학대학 총동창회를 예방한다. 이번 방문은 본교의 근황을 소개하면서 양교간의 학술 교류와 관계 증진과 후원 그리고 협력을 돈독히 하기 위함이다.

## 뉴욕장로회 신학대학 아비장 본교 2014년 봄학기 개강

2010년 부터 개설된 뉴욕장신 아비장 본교 이번 봄학기에는 임선순 총무처장과 김건철 교수가 2월 10일부터 22일까지 현지에 방문해서 아비장 뉴욕장신 학우들과 말씀과 신학을 나누게 된다. 이번 학기에는 임선순교수의 종교개혁사와 이단 비평, 김건철교수의 선교의 성경적 기초와 기독교 선교 역사 그리고 백성철교수의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애가의 강의로 수업이 진행된다

## 파라과이 선교기금 전달

본교 학생회에서는 지난 2012년 부터 채플시간에 드려진 헌금으로 본교 출신의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있다. 임선순 교수는 1월 12일부터 18일까지 파라과이에서 선교하는 황요한 선교사를 방문하여 2013년 한해 동안 헌금한 선교기금 \$ 1,581불을 전달하게 되며 선교지를 돌아 보고 격려할 예정이다.

## 졸업 논문 안내

1. 논문개요 제출: 2013년 12월 31일까지 A4용지로 5-6페이지 분량.
2. 제출한 논문 개요를 교직원회의에서 심사후 지도교수 배정.
3. M.Div 논문 분량은 A4 용지 70~100 페이지
4. 논문제출 마감일: 2014년 4월 30일

## 뉴욕 장신대학(원) 후원 안내

뉴욕 장로회 신학대학은 학교 발전 기금과 학교 건축 기금 두 가지 기금을 모읍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의 기도와 동참을 바랍니다. "Pay to the order of NYPTS"

### 학교 발전기금

번호	헌금하신 분	금 액	헌금일자	비 고
1	송병기 목사	5,000.00	6-16-13	전 학장 (이사회 입금)
2	최문병 목사	3,000.00	6-16-13	전 학감
3	무 명	5,000.00	11-30-13	장학기금

### 학교 건축기금

번호	헌금하신 분	금 액	헌금일자	비 고
1	Ran S. Cho	500.00	8-22-13	
2	Daniel D. Kim, D.D.S.	5,000.00	8-28-13	DANIEL D. KIM, D.D.S. LLC
3	First K. Plumming LLC	300.00	10-9-13	FIRST K. PLUMMING LLC
4	Jay Do Yu	2,000.00	10-17-13	학장 가정
5	장가원 장로	500.00	11-3-13	
6	최경애 권사	300.00	10-10-13	
7	장경희 권사	100.00	11-14-13	
8	한보현	200.00	11-24-13	
9	이종순	200.00	11-24-13	
10	이성국 목사	100.00	12-10-13	
11	유한나 변호사	1,000.00	1-3-14	유한나 변호사

※ 신학교 발전 및 건축 기금을 위해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뉴욕 장신 뉴스레터” 발행인 : 학장 유재도 / 편집장: 학감 이기백 / 편집차장 : 총무처장 임선순  
뉴욕 장신 뉴스레터는 일년에 4번 발행됩니다.